

새 살림집에서 새겨주신 뜻

2014년 10월의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동강기슭에 푸른 물결을 헤가르는 돛배마냥 화려하게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찾으시였다.

훌륭하게 완공된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게 된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한 살림방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흐뭇한 시선으로 방안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는 그야말로 과학자들의 해라고, 그들이 더욱 문명한 생활조건에서 살게 할수만 있다면 자신께서는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는데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과학으로 새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은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